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, 천년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(063-280-7111)
- 담당 : 산업경제연구부 나정호 부연구위원 (063-280-7178)

보도시점: 2019년 09월 11일(10)부터

한중카페리 증편,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

전북연구원, 주 6항차 한중카페리를 통한 군산항 활성화 방안 제시
물류인프라조성, 한중관광 활성화, 관계 지자체 간 협력 등 제안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2018년 1월 한중해운회담 결과 전라북도 군산항과 중국 산둥성 석도항을 연결하는 한중카페리 노선의 주 6항차 증편이 확정되었고, 2018년 4월 4일부터 주 6항차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이슈브리핑 ‘한중카페리,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!’(통권 207호)를 통해 군산항-석도항 간 한중카페리를 활용하여 군산항 물동량 증대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 방안을 제안하였다.
- 카페리(Cargo-Ferry)는 화물과 여객수송을 함께 하는 특수 운송형태로 한중항로, 한일항로와 같이 비교적 단거리 구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2018년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중 55%에 해당하는 44,056TEU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군산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.

- 군산-석도카페리 주 6항차 데일리 서비스를 위하여 두 척의 선박을 신 건조하여 2018년 4월, 2019년 7월 각각 항로에 투입되었다. 주 6항차 서비스는 물류 관점에서 ‘안정적인 물류 서비스’, ‘신규 화물(신선물류, 전자상거래물류 등) 창출’의 기회를 제공한다.
- 나정호 박사는 “한중카페리 주 6항차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,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, 인접항만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며, 운항선사의 경영상 위험이 예상된다”며,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였다.
- 구체적으로 ‘냉동냉장창고 등 콜드체인체계 구축’, ‘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장 조성’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투자유치, 인·허가 관련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,
- ‘전북도와 산동성 지방정부, 군산시와 영성시 간 산·학·연·관 협의체를 구성’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민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군산항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- ‘중국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’, ‘국제여객터미널 입국심사 인력·시설 확충’, ‘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공식워크숍’, ‘전북도 소재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’, ‘전북도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’ 등 전북도와 군산시가 주도할 수 있는 한중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.
- 한중카페리는 대부분 물류 관점에서 물동량 관리를 주로 다루지만, 군산항에서 출발하는 한중카페리의 경우 신 건조된 선박을 활용한다는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에 해운물류 담당부서, 관광 담당부서 등 관계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.